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코로나 차단 방역 실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대사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에서는 농업용 원거리 방제기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임대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임대농기계 등에 집중 방제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해 선정적 대응을 위해 방역소독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인배 소장은 “코로나19 안정화 시까지 주 2회에 걸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방제용 농기계를 활용,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감염예방과 농번기의 적기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홍보활동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고령운전자에 의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단속·홍보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기울칠 수 확률에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임실경찰은 사고잦은 지역·주요도로에서 지·파출소 합동 집중단속과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민의 생명... 현장 활동에 최선을’

진안소방서, 생명을 살린 사람들 ‘하트사이버’ 선정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 소속 구급대원 3명이 개찰 후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살려 진안소방서 1호 ‘하트 세이버’ 배지를 획득했다.

진안군 자택에서 60대 여성 환자는 수면 중 흉통이 발생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상태가 급격히 변화되었고, 구급대원은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심장을 다시 살려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하트세이버(Hear Saver)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급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 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 회복(심장지발생 전과 유사한 일상생활 가능)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수여식은 반기별로 나누어 인증서와 배지를 전달되며, 이번에도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딥답한 보호복을 입고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써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 노인 일자리사업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주생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 35여명을 대상으로 보행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어르신 맞춤 눈높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사고사례 설명을 통해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로횡단 시 좌우 살펴 건너기 등 실질적인 사고예방법을 전달했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인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부귀면, ‘농촌 일손돕기’ 추진

진안군 부귀면(면장 박춘선)은 27일 직원 10여명과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공 마을의 고주 재배 농가를 찾아 고주 때기 작업에 일손을 도왔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는 농가는 “업무추진에 바쁜 시기임에도 적기애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니 정말 힘이 난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춘선 면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히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대면 교육 및 체험활동을 제공해 직접 버섯을 키우고 그 버섯으로 요리 활동을 진행해 소소한 즐거움과 삶의 힘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경식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 해소와 정서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과제교육에 참여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5개 학교 4H 학생 ‘버섯 키우기’ 과제교육 실시

진안군은 27일 관내 5개 학교 4-H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농심 함양을 위한 새송이 버섯 키우기 과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마령고 진안중, 진안여중, 동향중, 진성중 4-H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호응을 빛았다.

이번 과제교육은 버섯의 생리 및 성장환경의 이해로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열렸으며, 4-H 기본이념인 지·덕·노·체 교육과 청소년들의 농심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대면 교육 및 체험활동을 제공해 직접 버섯을 키우고 그 버섯으로 요리 활동을 진행해 소소한 즐거움과 삶의 힘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경식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 해소와 정서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과제교육에 참여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며 사랑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장애인 50가정에 세대당 10만원 씩 전달될 예정이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 간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때에 풍성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어 줘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편의점 대상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빙종석) 생활안전계는 최근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을 주민에게 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지를 자체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법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본사 직원을 사칭해 ‘포스(POS: 판매정보시스템)’기 작동을 알바생을 통해 확인해도 편찮다는 점주의 허락을 받았더니며 알바생에게 매장 포스기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 줄테니 시카는 대로 하다가 하면서 현금으로 바꿔쓸 수 있는 편의점 캐시 영수증을 카카오톡으로 써어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과 함께 자녀를 사칭하여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다

액 구매하게 하여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피해사례를 홍보 전파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